신 | 간 | 안 | 내

이 지면은 매월 발간되는 새책소식을 독자들에게 정보로 제공하고, 아울러 불황의 출판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습니다.

느림보 학습법



현명한 부모들의 올바른 선택 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작년, 저자가 「현명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느리게 키운다」는 책을 펴내 화제를 모은 후 우리 아이만 뒤쳐지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과 불안함에서 벗어나 위안을 얻은 부모들이 아이를 느리게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방법을 알려달라는 수많은 문의와 요청 끝에 만들어진 책이다.

신의진 지음 / 중앙M&B 발행

조지 가모브, 물리열차를 타다



이 책은 본격적으로 고전물리와 현대물리의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빅뱅이론 창시자이자 DNA연구의 초석을 심어준 조지 가모브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려 한다. 이 책의 주인공인 탐킨스는 바로 독자가 대리 체험할 수 있는 매개 인물이 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물리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마음속에 물리학자가 될 꿈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

조지 가모브 지음 / 승산 발행

유럽의 축제



이 책은 유럽15개국의 민속문화와 생활문화가 녹아있는 축제를 한권으로 정리한 책이다. 그 자체로 종합 예술적 성격을 띠는 축제는 한 나라의 역사와 신화, 전통, 생활관습, 풍속 등이 응축돼 있어 해당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자 키워드라 할 수 있다. 다른 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내밀한 유럽문화의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문화의 안내서라 할 수 있다.

올리히 쿤 히인 지음 / 심희섭 옮김 / 컬처라인 발행

불황 또한 좋다



세계적인 가전업체 마쓰시타 그룹의 창업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남의 가게 고용살이를 하며 장사 수완을 익힌 후, 오사카 전등회사에 입사, 여기서 익힌 전기 기술을 발판으로 20대에 마쓰시타 전기기구 제작소를 차린 후 승승장구 사업 확장을 해 나간 그가 일본을 움직이는 세계적 대기업가가 되기까지 그의 인간중심 경영과 리더십을 소설화했다.

쏘모토 요 지음 / 윤덕주 옮김 / 북@북스 발행

books

정치와 진리



이 책의 목적은 정치와 진리라는 주제가 제시하는 문제의 핵심과 정치 사상적 연관들을 점검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정치는 철학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현상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포착해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는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치 현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작업인 셈이다.

김선욱 지음 / 책세상 발행

동서도자교류사 - 마이센으로 가는 길



중국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중국 자기와 같은 것을 만들려는 시도가 서남아시아와 유럽 각지에서 이루어졌으며 마침내 1709년 독일근교의 마이센 가마에서 요한 프리드리히 뵈트거라는 연금술사가 자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마이센으로 가는 길'이다. 이 책에서는 도자기의 기술 교류에 관한 문제와 자기를 둘러싼 각 나라와의 사이를 시대와 지역을 포괄하여 가능한 폭넓게 살폈다.

미스기 다카토시 지음 / 김인규 옮김 / 눌와 발행

27인의 개성상인



개성상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저자는 개성상인의 다섯 가지 특징과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며 도전하려는 젊은이들에게나 시련을 만나 그것을 극복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신, 기질을 보여준다. 우리민족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개성상인 정신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매스컴으로부터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김주영 지음 / 산과들 발행

죽여야 될 영문법 꼭 살려야 할 영문법



「미쳤다고 영어를 어렵게 공부해」「미국 20대가 가장 많이 쓰는 영어Box」「영어회화, 365단어로 코쟁이 기죽이기」등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미 유명한 그가 영어 배움에 목말라하는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 또 다시 엄청난 책 한권을 냈다. '기본의 기본을 알자''문장을 만들어 보자''영어문장을 만들 때 테크닉을 높이는 방법 25가지''재미있게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상황 영어회화 60개'등.

백선엽 지음 / 서울문화사 발행

야생동물 구조대



이 책은 올무에 걸린 고라니를 치료하기 위해 산골마을 '솔티말'을 찾은 구조대원 석이를 통해 구조대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주인공 산이가 고라니를 돌보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을 그린 장편동화이다.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무릎쓰면서도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강한 의지로 야생동물 구조대를 꾸려가는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씌어져 매우 구체적이고 생동감이 넘친다.

조호상 지음 / 조광현 그림 / 사계절 발행

그림책



누가 그림책 앞에 '유아용'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가. 누가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에게서 그림책을 빼앗는가. 또 누가 학교도 안 간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그림책에서 글자를 또박또박 짚어가며 읽게 하는가. 아이들에게 세상은 해독해야 할 기호로 가득차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주장한다. 아이들이 잃어버린 그림 혹은 자유를 찾아주기! 그림 안에 아이들과 함께 헤어치기!

최윤정 지음 / 비룡소 발행

늑대의 눈



동물원 철창을 사이에 두고 늑대와 소년이 마주 보고 있다. 한입에 먹어 치울 듯이 노려보는 늑대와 날카로운 눈빛, 그러나 소년은 눈길을 떨구지 않는다. 늑대와 소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책은 프랑스 어린이 문학에서 고전의 자리를 굳히고 있는 작품이다. 이미 열 개가 넘는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 세계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읽히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만화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다.

다니엘 페나크 지음 / 자크 페랑데즈 그림 / 최윤정 옮김 / 문학과지성사 발행

신 | 간 | 안 | 내

게재된 내용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자료(책)를 읽고 간추린 것입니다.

사불산 윤필암



이 책은 열일곱명의 미술인들이 경상북도 문경의 '윤필암'과 맺은 각각의 인연을 조형과 재현의 시각 이미지 그리고 글로 담아낸 것. 한 암자와 우리 현대 미술이 이렇게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인연의 오묘함, 보시하듯 피어난 작품들이, 글들이 연꽃처럼, 들꽃처럼 소리없는 미소로 다가와 머문다. 이 책에서 스님들이 용맹정진 갈고 닦은 정갈함을 만날 수 있다.

정영목 엮음 / 학고재 발행

우리 아이 수학대장 만드는 수학동화



이 책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옛날 이야기처럼 입담이 있고 텔레비전 만화처럼 생동감 있으며 화려한 그림을 곁들여 수학의 기초개념을 동화속에 담았다. 1,2,3 더하기, 빼기의 수화 연산개념, 세모, 네모, 동그라미의 도형개념, 위·아래, 앞·뒤의 공간개념, 무게, 부피, 넓이, 길이, 높이의 측도개념, 부분과 전체, 규칙, 분류의 개념 등을 동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우리기획 지음 / 이춘길 외 6명 그림 / 예림당 발행

단순한 기쁨



피에르 신부는 금세기 프랑스가 낳은 세계 최고의 휴머니스트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열아홉에 수도원에 들어가 신부가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때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전후에는 잠시 국회의원을 지냈다. 프랑스인들에게 항상 '가장 사랑하는 인물'로 손꼽히는 그의 인생은 <겨울54>란 제목의 감동적인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 겪었던 모든 기억들을 용서를 구하듯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다.

피에르 신부 지음 / 백선희 옮김 / 마음산책 발행

대조영과 발해



대조영은 만주 동모산에 나라를 세우고, 불타는 용기와 뛰어난 전략으로 침략군을 몰아내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모두 되찾은 인물이다. 그러나 발해를 세웠던 대조영에 대해서는 그 전기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 책은 우리민족의 긍지를 찾아가는 과거의 여행이며 동시에 우리 역사 속에서 늘 그늘져 있던 발해를 바로 알기 위한 것, 민족의 영웅 대조영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이광웅 지음 / 홍성찬 그림 / 예림당 발행

어머니, 그 삐뚤삐뚤한 글씨



이 시집은 어머니의 희망이었지만 너무 이르게 절망이 되어버린 딸을 한번도 외면한 적이 없이 언제나 딸의 서러움을 나누어 가진 오직 한사람, 어머니를 그리며 새롭게 묶은 연작시집이다. 초여름 햇살같은 어머니의 웃음을 빼앗은 딸인 시인이 이 시집으로 어머니의 웃음을 찾아드리는 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비는 마음에서 쓴 어머니를 위한 시집이다.

신달자 지음 / 문학수첩 발행

어느 로맨티스트의 고백 上·下 / 수필의 길 40년



저자는 청년기에 이미 시와 고전문학, 현대문학을 거친 후 수필 창작에 임해 한국 수필문단의 기수로 활약했다. '수필의 장르적 가치는 이론의 확립에서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1968년 상명여대 재직시부터 강의했고 한국수필문학회를 결성, 수필동인 활동의 모태를 이루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수필과 함께했다. 이번 「어느 로맨티스트…」는 계속되는 그의 행보이며 「수필의 길…」은 그간 그의 행적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윤재천 지음 / 문학관 발행

books

슬픈 사랑



출판사상 유례가 없는 3백만부 판매를 기록한 「홀로서기」의 서정윤 시인의 이번 시집은 지금까지 추구해온 시세계와는 또 다른 한층 변모된 모습으로서 사랑을 다루고 있다. 계산적이거나 남의 이목을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 사랑 앞에서 순수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사랑에 빠진 순간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사랑의 신비로움, 시인은 이러한 사랑의 완성을 생각한다.

서정윤 지음 / 문학수첩 발행

별을 보여드립니다



외롭고 슬플 때면 하늘의 별만 바라보는 속절없는 영혼들이 있다. 별을 보며 누나를 애타게 찾고 어머니를 간절히 부른 아픈 마음들이 있다. 그 영혼의 상처가 깊어질수록 그리움도 깊어진다. 이청준 소설에서 별은 가장 진실한 꿈이며 근원적 그리움의 대상이다. 이 책은 내면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한 다채로운 증언과 웅숭깊은 성찰의 관점으로 구성된 이청준식 별의 지도다.

이청준 지음 / 열림원 발행

나



독일이 통일되기 전 음울한 동독 사회를 조명한 볼프강 힐비히의 소설 「나」가 출간되었다. 이 작품에서 구동독의 몇몇 작가들이 국가 안전부의 스파이로 밝혀진 실제 사건이 최초로 문학화되었다. 작가로, 스파이로 이중생활을 하면서 그 어디에서도 '나'를 찾지 못하는 주인공 M.W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에서는 누군가가 엿보고 있다는, 아니 누군가를 감시해야 한다는 당시 동독 사람들의 강박관념과 불안, 초조감이 그대로 묻어난다.

볼프강 힐비히 지음 / 김선형 옮김 / 책세상 발행

손님



미국 브루클린에 사는 류요섭 목사는 고향방문단 일행으로 북한에 가게 되는데, 요섭의 방북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그의 형 류요한 장로가 숨을 거두고 그 며칠 사이 요섭은 알 수 없는 꿈과 환영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결국 요섭은 평양으로 떠나고, 평양으로 떠나는 길, 홀연 망자의 유령이 나타나 고향으로 가는 그와 동행하게 된다.

황석영 지음 / 창작과비평사 발행

아르테미스 파울 上 · 下



12살의 아르테미스 파울은 어린 나이지만 뛰어난 범죄주모자. 그러나 그 조차도 요정나라 정찰대의 초록요정 홀리 쇼트 대위를 유괴했을 때 자신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동화 속에 나오는 동심 속의 요정들이 아니다. 그들은 무장을 하고 있으며 위험하다. 아르테미스는 요정들과의 협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정들을 주도해 나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정들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과감하게 대응해 오는데….

이오인 콜퍼 지음 / 서민아 옮김 / 열림원 발행

동정없는 세상



제6회 문학동네 신인작가상 수상작. 주인공 '나'는 이제 막 수능을 치렀으나 대학 같은데는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꿈이 있다면 오직 여자친구 서영과 '한번 하는 것뿐인, 피끓는 십대다. 스물 전에 '나'를 임신한 것이 틀림없는 엄마와 명문대 법대 출신이지만 백수인 삼촌, 그리고 아빠없는 이 가족구성원이라면 '나'는 으레 빗나갈 수 밖에 없다. 이 소설의 미덕은 어차피 빗나가게 돼 있다는 그 진부한 통념을 산뜻하게 배반한 데 있다.

박현욱 지음 / 문학동네 발행